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7호 【루게 제23394호】 주체100(2011)년 3월 18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판생일에 즈음하여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꾸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말디브제공화국 대통령, 만마련방공화국 국가평화발전리사회 위원장, 몽골 대통령, 아랍사회부총장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캄보디아왕국 국왕, 파키스

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오만추장국 추장,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기네공화국 대통령, 마르코프왕국 국왕,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위원장,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케니아공화국 대통령, 탄자니아연합공화국 대통령, 콩고공화국 대통령,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수상, 국제김일성상 리사회 서기장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

사장,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따뜻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시었다. 본사기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함수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로씨야와 체코에서 보도하였다. 14일 로씨야의 이파르-파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해군함수단의 공연을 관람하시

었다. 함수단은 혼성 2중창과 합창 《나의 힘은 정은 조국땅》, 《라즈를 《조국의 바다를 지킨 기쁨안고》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함수단에 솔인들이 사상에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함수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으로 군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함께 보시었다. 이날 체코주체사상연구소 및 구원소조와 백두산체코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제9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제9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제9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 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냈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반체,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귀 당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475호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5호  
평양  
강도 대흥단군에 국도환경보호모범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국도관리사업을 군정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군을 잘 꾸리고 그 면모를 일신시킴으로써 사회주의강대국건설에 이바지한 향강도 대흥단군에 국도환경보호모범군칭호를 수여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0호 주체100(2011)년 3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를 주체100(2011)년 4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를 주체100(2011)년 4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대의원등록은 주체100(2011)년 4월 5일과 6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 원대한 포부를 안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자 인민생활대고조으로 고무추동하는 화선식정치사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인 전투적소속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적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로 하여 지금 온 나라는 활화산의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위대한 세기적변혁이 바야흐로 래동하는 격동적인 시대에 들어와있습니다.》 올해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개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판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도에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이 불철영농전투를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농촌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 일군들이 과학과 기술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도록 적극 떠맡아주고있다. 불철군 신임협동농장에서 종자처리, 싹피우기를 비롯하여 불철영농작업과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도안의 시, 군핵일군들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소농기구전시회와 트랙터도출동식, 부림소평행회를 실시하여 진행하여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

의 모든 시, 군들에서 소농기구전시회가 진행된 후 도적으로 48종에 수십만점의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농촌들에 보내주었으며 신의주시에서는 트랙터도출동식과 부림소평행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촌에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있다. 신의주시, 정주시, 흥천군을 비롯한 모든 시, 군에서 시 많은 것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도인민위원회와 신의주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시, 군급기관 일군들, 공장, 기업소, 등, 인민반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농사를 함께 책임 힘있게 맡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방직공장과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소들을

공정들의 생산현장에 내려가 인민생활대고조진군에 펼쳐나선 로동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해서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구성지구 탄광발전기업소에서 석탄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나가도록 적극 떠맡아주는 한편 탄광지역의 불철을 세차게 지켜리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이등장연을 조직하여 탄부들을 석탄중산으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있다. 그리하여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군정적으로 많은 파찰을 모아 금속공정들에 보내준데 이어 유류자재를 수집하여 정유공정들과 지방공정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문평제련소 로동자, 기술자들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받고 대고조진군에 펼쳐나선 로동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해서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구성지구 탄광발전기업소에서 석탄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나가도록 적극 떠맡아주는 한편 탄광지역의 불철을 세차게 지켜리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이등장연을 조직하여 탄부들을 석탄중산으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있다. 그리하여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군정적으로 많은 파찰을 모아 금속공정들에 보내준데 이어 유류자재를 수집하여 정유공정들과 지방공정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영농공정별지도를 짜고들어  
평양도 농업부  
평양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킬 들끓는 열의에 불철영농공정별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에서 중요전선은 영농공정별지도를 잘하는것입니다.》 도에서는 올해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좋은 농사경험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한 다음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불철영농공정별지도를 짜고들게 하고있다. 얼마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해산시 신장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시하게 조직하였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과업,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고 그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방

합경복에서 회천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회천발전소건설장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십종에 수만점의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회천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지원사업에 한사랄같이 펼쳐나갔다. 지원사업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성진제강련합기업소가 앞장에 서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 주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시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남에남다다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발전소건설자들을 적극 지원할 뜨거운 마음안고 작업공구를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

도에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줌으로써 발전소건설자들을 고무추동하였다. 무산평산련합기업소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수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수산관리위원회는 여러가지 로동보호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도 발전소건설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리나가고있다. 청진시와 김책시에서는 여러가지 로동보호물자들을 보내주어 발전소건설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온성군, 경흥군, 부령군, 화대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군들에서 지원사업

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공동사업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열의를 안고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고있다. — 동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 신 흥 혁 적을

# 장 군 님 과 C N C ( 1 3 )

## 전 동 체 계

련동체계라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었다. 《구원천주》라는 친근하고도 신명만 뜻을 가진 말씀을 익히는것으로부터 CNC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우리 일군들이 련동체계라는 장군님의 또 하나의 새 기술단어를 귀에 익히면서 한단계 더 높은 CNC화의 고지에 행군해가고 있었다.

2009년 10월이었다. 북방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CNC기계를 돌리시던 현장에 들어서셨었다.

나라에서 마련해준 자금으로 수십대에 달하는 CNC설비들을 그분에게 차려놓은 현장은 칩 보급에도 정신이 없었다.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재를 가공하게 되어있는 붕소제공급기로부터 시작되는 《CNC행렬》이었다.

종전에는 소재를 잘라서 물려 가공하였기때문에 소재량비가 있었지만 붕소제공급기를 도입한 결과 소재를 절약할수 있었다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이렇게 물으셨었다.

《선방공들이 이제는 다기대를 운전해야 하지 않소?》

장군님의 물음의 진의도를 일군들은 선뜻 이해하지 못하였다.

사실 현장의 기대에는 불필요한 많은 인원들이 붙어있었다. 견습공들을 붙여놓았다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장군님을 뵈고싶은 심정을 안고 초급일군들과 생산지휘성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서있었다.

그것으로 하여 CNC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복잡한 《풍경》이 펼쳐졌던 것이다.

《장군님, 한기대당 한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얼굴을 붉히는 지배인을 보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것으로 CNC화를 완성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저 공작기계를 현대화하였다고 말할수 있지.》

그 말씀은 현장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깨우쳐주시는 뜻만이 아니었다.

《CNC설비들을 련동체계로 묶어놓으면 한사람당 기계를 4대, 5대씩 관리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CNC화를 실현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짝어서 말씀하시었다.

《만능공작기계가 다기대운전이 안됩니다. 그러나 CNC기계는 다기대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CNC기계를 줄세워놓은것으로 만족하는 일군들의 판점을 대변에 새로운 높이에 세워주시는 말씀이었다.

《장군님말씀대로 이제부터 련동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차린 지배인이 심중하게 울리는 말씀이었다.

## 검사인원이 줄어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문득하시는 말씀이었다.

《CNC화가 실현된 곳에서 일일이 가공품을 검사하는 공정이 필요한가, 이것을 연구해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CNC설비에서 가공된 제품을 가리키시며 재차 질문을 던지시었다.

《어떻게 생각하오?》

일군들의 사고를 계발시키는 물음이었다. 공장의 지배인은 《이제는 CNC화되었기때문에 각종 측정기구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해서 검사장비와 로력을 많이 절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일군들을 바라보시었다.

한 일군이 자기 의견을 첨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그것이 정말 옳습니다. 이전처럼 제품검사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품검사원들이 일의 제품을 꺼내서 검사해보면 몇몇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제품을 일일이 다 검사하다보니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검사공정만 해도 로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군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드디어 결론을 내리시었다.

《고쳐야겠소. CNC화를 하였기때문에 검사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CNC화가 실현된 공장들에서 검사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국가적조치가 취해졌다.

## 늘어나는 생산

그이께서는 벽에 걸여놓은 직판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거기에는 CNC화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수자자료들이 있었다.

전기는 얼마 절약되고 생산성은 얼마나 높아졌는가, 로력은 또한 얼마 절약되었는가 등의 수자자료들이 쓰여져있었다.

직판관을 유심히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중앙의 일군을 직판관가까이로 부르시었다.

《이 수자를 보오. CNC화를 하였는데 절약된 로력수자가 이 정도로 되겠소? 로력수자가 더 나와야 합니다.》

《장군님말씀대로 로력을 더 절약하겠습니다.》

공장의 지배인이 최종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해하며 장군님께 말씀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다시 깨우쳐주시었다.

《CNC화를 하면서 투자한 자금에 비하면 줄어든 로력이 너무 적습니다. 로력을 절약하여 효과적으로 써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에, 알았습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을 드리는 도망쟁이 일군에게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강조하시었다.

《로력을 줄여가지고 생활직장 같은데 보내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대한 평가는 로력을 얼마나 절약하였는가 하는것과 함께 절약된 로력으로 생활 제품을 얼마나 더 만들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일군들의 대답이 힘차게 울리었다.

남은 로력으로 더 많은 생활제품을! 로력관리에 대한 새로운 표상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일군들의 가슴속에 남긴 여운은 컸다.

CNC화의 길에서 받아안은 귀중한 경제 수업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감동속에

## 더 높이, 더 빨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CNC화가 실현된 어느 한 공장의 현장을 돌아보신 후였다.

공장의 지배인이 CNC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느낀 소감에 대하여 장군님께 솔직히 아뢰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장군님말씀 받들고 일하면서 느낀것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현장로동자, 기술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것을 많이 느끼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강과정 선생 두분이 나왔는데 그 선생들과 생산공정을 함께 꾸리는 과정에 로동자들이 배운것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양철도대학 연구소동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유망장치량 제작하는 과정에 로동자들이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느낀것은 연구사들과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배합되면 장군님말씀대로 질 좋은 제품도 만들수 있고 새것을 많이 창조할수 있다는것이었습니다.》

제가 느낀것은 연구사들과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배합되면 장군님말씀대로 질 좋은 제품도 만들수 있고 새것을 많이 창조할수 있다는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지배인의 소감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과학은 지식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로동자가 과학사업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과학자들과 현장로동자, 기술자들과의 배합이 잘되어야 합니다.》

《과학자들과의 배합이 잘되면 무서운것이 없을것입니다.》

《그러서 지식이 광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에 이어 중앙의 일군이 흥분하여 말하였다.

《장군님께서 CNC화를 잘하는 공장들을 요란하게 칭찬해주시니까 공장들에서 이

사있는 일군들을 따듯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오.》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다. CNC화로 하여 절약되는 로력을 늘어나는 재산이라고 하신 말씀은 또 하나의 귀중한 명언이었다.

제는 설비전반을 CNC화하기 위하여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장들에서 복잡한 제품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공하도록 설비를 개조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CNC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상당히 파악되었다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시면서 큰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이제는 최첨단으로 가는 주류에 확고히 들어섰소.》

위대한 사상과 구상을 인민이 리해하였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는 현실을 실감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더욱더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래서 더 빨리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았소. <더 높이 더 빨리!>!》

장군님의 말씀에 화답하여 한 일군이 아뢰었다.

《장군님, 정말 그렇습니다. <돌파하라 최첨단> 이 노래도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격정에 휩쓸린 그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었다.

《CNC설비들을 또 들여오시오. 그러면 또 와야겠구만. 또 와야 해. ...》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용차를 타시었다.

보양할 면지안개를 남기면서 달리는 승용차를 배웅하며 일군들은 마음속에 다시 새겨보았다.

더 높이, 더 빨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이 고귀하고도 절박한 시대적요구에 다시한번 자기자신을 비추어보며 누구나 생각이 깊어졌다.

## C N C < 4 초 >

만든 기계를 보여드리었다.

《장군님, 이 설비는 150일전투의 창조물로 저희들이 장안제작한 고무가류사출기입니다.》

지배인이 보고드리는데 그 기계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 5월이 공장에 오시었을 때 고무가류프레스를 보이고 더 발전된 새 세대 설비가 있을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장안제작한것이었습니다.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고 로동자, 기술자들이 합심하여 만들었다는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프레스에서 찍혀져나오는 제품을 만져보시었다.

《장군님, 드십시오.》

프레스에서 찍혀져나오는 제품을 만져보시는것이 격정되어 지배인이 말씀 올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금방 프레스에서 떨어져나오는 제품을 아랑곳없이 만져보시면서 새 기계의 우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해하시었다.

새로 장안제작한 고무가류사출기에서 새 제품이 1분 45초만에 한개씩 나오고 고무가류사출기 한대가 종전의 프

레스 6대를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새로 왔다.

고무가류사출기 3대를 도입함으로써 프레스 18대와 기류가열기가 필요없게 된다고 하면서 현대화로 하여 필요 없게 된 기류가열기 1대와 63(고무가류프레스 18대를 나라이 바치겠다)고 하는 지배인의 목소리는 기류에 젖어있었다.

《이 설비가 완성되게 된것은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종자를 주시였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문에서 사출기를 요구하면 만들어주겠다는 결의까지 다지는 지배인을 미더우게 바라보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다.

《이것은 댄CNC요. CNC <4 초>.》

뜻밖의 말씀에 모두다 웃음을 터뜨렸다.

## 프레스도 CNC화

CNC를 잘 안다고 말하는 일군들도 PLC와 CNC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어떤 일군들은 PLC기계를 보기도 CNC기계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CNC기계를 보기도 PLC기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한 논리조종을 하는 PLC기계를 보고 CNC기계라고 하면서 CNC화를 해놓았다고 자랑하는것은 사람들에게 CNC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주고있었으며 그것이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데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PLC와 CNC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세워주시었다. 《CNC화되었으니 제품생산에서 불활력이 없습니다.》, 《로동자들이 컴퓨터로 일하니 정말 좋아합니다. 로동자들이 신신이 되어 심심해질 정도입니다.》

《잘못하면 무직업자가 될수도 있소.》

《그말에 장군님께서 모를 막아 응답하시었다.》

《잘못하면 무직업자가 될수도 있소.》

《그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일군들도 리해하고있었다. 로력관리를 잘하라는 뜻이었다.》

《장군님, 2500t 프레스입니다. 고년의 행군에 사정되었던 설비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로 이렇게 개조해서 쓰고있습니다.》

지배인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종합조종실에 들어서시었다. 프레스의 작업과정이 화면에 그대로 현시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프레스의 작업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시었다.

산같은 프레스가 프로그램에 따라 저 혼자 동작을 하고있는것이 기특할 정도였다.

《2500t 프레스 CNC화라는데 간단하지 않소.》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면을 계속 보시었다.

20년동안 묵어있던 프레스가 드디어 잠을 깨고 일어났다고 하는 한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다.

《20년동안 잠을 재웠으니 이제부리는 만부하를 거시오. CNC기계를 도입하니 얼마나 좋소.》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1200t 프레스 직장에 들어서시었다.

산뜻한 옷차림을 한 처녀들이 프레스를 프로그램으로 조종하고있었다.

《이렇게 CNC화된 프레스를 차려놓으니 처녀들도 기대를 운전할수 있고 로동자들이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지배인의 자랑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한편의 노래를 들으실 때처럼 온갖 시물을 다 잊고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되뇌이시었다.

《이제는 협하게 일하게 되었소. 협하게...》

장군님께서서는 오때도록 미소속에 계시었다. (다음호에 계속)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수여

【평양 3월 17일발 조선 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훈장 제1급이 메 반 그 주조 월남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수여되었다.

수여식이 17일 민주주의당에서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성동지와 박길연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의 일군들, 월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이 전달된 다음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

적정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지지와 헌대성을 보내주고 조국과 월남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친선훈장 제1급이 수여되었다.



백두산인민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며 선군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걸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백두산인민혁명명전적지에서- 리명혁 찍음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각 하께

가장 존경하는 각하  
2011년 3월 12일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자력갱생과 자주-세계평화로의 길》의 의제로 진행된 인디아주체사상전국토론회에 참가한 철학자, 리론가, 교수, 사회활동가, 정치인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신 각하께 저희들모두의 축하를 드리는바입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전세계 수억만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음모를 짓부서버릴수 있도록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전체 토론회참가자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헌대성과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만장일치로 다시금 표명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주체사상 연구보급활동에서 보다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는것으로써 인류역사의 대경사로 성대히 기념할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2012년 4월 주체의 최고성지 평양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소집할때 대한 호소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대회를 통하여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드림있는 신념을 재확인

하고 조선이 사회주의의 진정한 성체, 평화와 진보, 번영과 자유의 희망이라는것을 세계에 파시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인류의 평화와 진보,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건강하신킨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자력갱생과 자주-세계평화로의 길》의 의제로 진행된 인디아주체사상 전국토론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수완님께서 2011년 3월 12일 뉴델리

##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을 지지한다 인디아주체사상전국토론회 진행

인디아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자력갱생과 자주-세계평화로의 길》의 의제로 12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토론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책임자들, 각계 인사들과 그리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

소 리사장이 참가하였다.

조선사회과학원회대표단과 인디아주체사상전국토론회에 참가한 사진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업적을 창조하시어 진보적인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한평생 인민을 스승으로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정치로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은 인류사

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사상으로서 인디아가 적극 받아들여야 할 위대한 사상, 세계평화에 결정적영향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사상으로서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하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를 모든 분야에

#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짜고들자

## 생산공정의 현대화에서 틀어쥐고 고리

최근년간 안주철연료공장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절연물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왔으며 많은 일을 해놓았다.

넓은 설비를 들어내고 새로 일떠세운 현대적인 절연물생산 공장, 설비를 적게 쓸수 있게 새 기술을 받아들인 절연물생산공정과 보다 현대화된 절연물생산공정 등 몰라보게 변모된 공장을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속에는 기업관리를 간지럽게 하기 위해 늘 머리를 쓰면서 대중을 적극 발동하고있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의 한걸음 뛴개같이 내딛고있는 현실은 지도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공장의 일군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고 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우선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을 중심고리

안주철연료 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그리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대담하게 믿고 기술과제들을 한 가지씩 맡겨주어 우리의 원료로 절연물을 생산하게 하였다.

동시에 생산과의 일군들로 수입인자를 쓸 때와 쓰지 않는 경우 노력, 자재, 자금의 소비정형을 간간히 따져보게 하였다. 국내원료에 의한 절연물의 생산원가는 예상했던것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종전보다 몇개의 생산공정이 늘어나 노력이 더 필요하였으나 자금이 적게 지출되어 생산원가를 현저하게 낮출수 있었다.

더우기 우리의 원료로 생산을 평평 내밀수 있어 좋았다. 거듭되는 실험결과를 몇가지 기술적지표만 정한다면 국내원료로 얼마든지 수입원료를 대신 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그후 공장의 일군들은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몇달후에는 국내원료에 의한 절연물생산에서 성공하였다. 간혹 이런 경우 값비싼 수입원료를 국내원료로 대신한다는데로부터 질보장문제를 소홀히 할수 없다.

그러나 이곳 책임일군들은 질이 낮은 제품을 아무리 많이 생

산해도 필요없다는 립장에 서서 자체의 기술력으로 절제고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갔다. 이 과정에 수십건의 기술혁신단들이 생산에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국내원료로 절연물생산은 정상화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여놓았다.

공장의 일군들이 언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기술자들을 적극 발동하고있는것도 자랑적이다.

공장책임일군들의 사업기공에서 남다른 점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기술자, 기능공들을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이다.

다행히도 이 공장에서는 한가지씩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는 과정은 그대로 공장에 과학기술중시의 열풍을 몰아오는 계기로 되었다. 지배인이 직접 절연물의 질을 한계선 높일수 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한것과 당일군이 기술자와 힘을 합쳐 현대화사업의 중요요소를 맡아 수행한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기술자들에게 과제를 주기에 앞서 그들의 창조성을 키워주고 안목을 넓혀주는 사업은 공장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실현을 생활력이 화끈된 일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느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모란포공정에서의 마지막일과도 작업반들의 일생산 및 재정총화로 끝난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1 작업반의 저녁총화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작업반원들이 한자리 모여있는 가운데 일생산 및 재정총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사회담당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의 자료를 건넬 준비를 하고있었다. 작업반원들이 한자리 모여있는 가운데 일생산 및 재정총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사회담당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의 자료를 건넬 준비를 하고있었다. 작업반원들이 한자리 모여있는 가운데 일생산 및 재정총화가 시작되었다.

## 작업반의 마지막일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실현을 생활력이 화끈된 일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느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모란포공정에서의 마지막일과도 작업반들의 일생산 및 재정총화로 끝난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1 작업반의 저녁총화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작업반원들이 한자리 모여있는 가운데 일생산 및 재정총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사회담당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의 자료를 건넬 준비를 하고있었다. 작업반원들이 한자리 모여있는 가운데 일생산 및 재정총화가 시작되었다.

## 모란포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실현을 생활력이 화끈된 일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느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모란포공정에서의 마지막일과도 작업반들의 일생산 및 재정총화로 끝난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1 작업반의 저녁총화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작업반원들이 한자리 모여있는 가운데 일생산 및 재정총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사회담당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의 자료를 건넬 준비를 하고있었다. 작업반원들이 한자리 모여있는 가운데 일생산 및 재정총화가 시작되었다.

기술준비실장 박명숙동무의 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은웃가공에서 로동정량은 웃의 형태와 재질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고 한다.

그에 맞게 로동자들의 리익에 맞으면서도 생산을 늘일수 있는 과학적인 로동정량이 제시된다고 한다.

1 작업반장이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과학화된 로동정량을 가지고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짜고 드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우선 생산자대중속에서 있는 설비, 자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려는 주인다운 기풍이 발휘되어 적은 노력과 자재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수 있어 경제적실리는 매우 컸습니다. 또한 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솔직하게 하니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성향이 더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공장의 기업관리에서는 진전이 일어났으며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고 이들은 궁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공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와 매출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좋은 현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본사기자 리철옥



설비관리를 잘하여 전력도손실을 극력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2. 8비탈련합기업소 기성소다직장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직장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설비관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모두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이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설비정점의 남을 리용하여 설비운영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직장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모든 설비들에 정중하고 기술혁신의 양장에 선 결과 직장에서 설비들의 생산능력이 높아지고 합리적이며 가치있는 기술혁신단들이 여러 생산공정에 도입되어 크게 은을 내고 있다.

로동동원원 장명일

## 현장에서 찾은 증산방도

### 신창청년탄광에서

되고 생산이 오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중대에 내려간 탄광의 일군들은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며칠동안 품을 들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작업반들을 앞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계획성과 그 수행에서 사소한 빈틈도 없었다.

뿐만아니라 중대에서는 동발나루를 모조리 회수리용하고있고 탄부들이 사출콘베아와 탄차,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를 능동자와 같이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었다.

하루일을 마치고 다음공대를 위하여 현대의 동발나루라든가 체탄장에 더 넣어주고야 현장을 떠나는 탄부들의 소행은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한마디로 모든 생산공정이 철저치밀 따돌리고 탄부들이 누구나 석탄증산을 위하여 도 뛰는데 중대가 거두고 있는 성과의 비결이 있었다.

작업의 철칙을 일군들은 중대장 김우중동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다시 정한 자재소비기준

탄광에서 굴진을 맡아보는 한 일군이 사회주의경쟁총화준비 서두를 때였다. 굴진소대들의 실태를 알아보니 8경 굴진 1소대가 굴진실적이 높은데 비해 정대와 정알소비가 다른 소대들보다 많았다.

소대장을 만난 기회에 일군은 정대, 정알소비를 줄이면서 정대는 사회주의경쟁총화에 응당한 평가를 받을수 없다고 그루를 막아 말하였다.

그러나 소대장은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면 정알할 알 아가다가 기본굴진을 내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는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이 소대가 일하는 막장으로 향하였다.

막장을 돌아본 일군은 그만 애야 머리를 지게 되었다.

소대가 차지한 막장의 암석세가 다른 막장들에 비해 높았다. 그런데다가 소대에는 신일굴진공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 맞게 소대장은 기능공 몇명만 착암기를 다루

### 원산지 3대혁명별은

원산지 3대혁명별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선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하고있다.

당세포의 당원들은 직장의 크고작은 기계설비들의 만가공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위하여 쏟아 붓고있다.

린광명, 정명동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구두생산을 위한 주요공정들을 맡아 매일 두류, 세류의 해체하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제끼고있다.

뿐만아니라 당세포의 당원들은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생산된 제품을 보라고 마음속으로 웨치며 스스로 제품정사원이 되

### 원산지 3대혁명별은

원산지 3대혁명별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선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하고있다.

당세포의 당원들은 직장의 크고작은 기계설비들의 만가공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위하여 쏟아 붓고있다.

린광명, 정명동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구두생산을 위한 주요공정들을 맡아 매일 두류, 세류의 해체하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제끼고있다.

뿐만아니라 당세포의 당원들은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생산된 제품을 보라고 마음속으로 웨치며 스스로 제품정사원이 되

# 혁신적인 안목, 진취적인 일본새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입니다.》

사업을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방법론있게 내밀고있는 은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 기풍은 부림소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부림소는 농사일에 적극 리용하는것이 조건에 구애없이 농사를 자체로 짓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본 군당위원회는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부림소에 의한 영농작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가 열렸을 때였다.

군당책임자 김성남동무가 모든 협동농장마다 송아지생산 전문분조를 조직하는것과 함께 밀폐식소우리를 갖춘 부림소집결장을 만들어놓고 소양지급 영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송아지생산과 부림소마리수를 늘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군들은 누구나 그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송아지생산과 함께 부림소마리수를 계통적으로 늘일수 있는 혁신적인 안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전개된 사업이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군당위원회는 본보기단위를 덕천협동농장으로 정하였다. 이곳 리명비서 김순기동무는 사업에서 연구심이 강하다. 집에서 부림소를 기르면서 일정한 경험을 쌓은 그가 사업에 애를 기울이고 강하게 내미니 그 성과가 좋았다.

쌍짓한 부림소들을 집결장에서 공동으로 기르니 송아지생산이 평균 1. 8배까지 높아졌

## 은천군당위원회 일군들

다른 광장을 볼수 있다.

소방소로에 맞추어 영각소리 높이 울리며는 발달이도 하고 영농물자를 실어 나르는 부림소들의 모습은 볼수록 가관이요, 여기에도 농촌당사업은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방법론있게 내밀고있는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남다른 사색과 노력이 깃들여있다.

어느날 군당책임일군은 은천협동농장에서 부림소를 리용하여 눈같이설적을 부림소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소의 겨울을 보듬고 한달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유정한 소방소로에 심어져 포진으로 길음을 옮기는 그의 머릿속에서는 송아지생산에 부림소력을 높이는 비결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올은 고안되었다.

이 고안을 태를 묻고 살아고있는 로인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해방전에 농사꾼들은 그처럼 설적이 어려울 속에서도 부림소들에 소방을 달아주었다 한다. 풀라온것은 소방소로에 맞추어 눈발이 쏟아지는 소들의 부림소력이 매우 높았다는 신기한 사실이었다.

소대거리의 앞부분에 열전장식을 한것은 소를 제살살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주인들의 애뜻한 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 때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필요한 도사들도 보고 이 부분에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과 마주앉더니 의견이 일치되었다.

군당위원회는 열전장 소방을 만드는 과정이 농장원들을 당의 농업정책을 순철하게 받들어가는 애국농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책임인 사업으로 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유류자재를 수집하기 위한

## 사업이 당적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이 당적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얼마후 농기계작업소와 군농기구공장에서 만든 수많은 소방들과 열전, 소년자들이 군의 모든 협동농장에 보내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부림소들의 부림소력을 훨씬 높여주는 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설적이 따라 사람들을 정확히 평가하자는 그들을 더 큰 혁신으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이다.

군당위원회는 이 사업도 방법론있게 하였다.

해마다 1 2월과 3월이면 문화회관에서 부림소관리공회의와 송아지생산전문분조 분조장들의 회의를 조직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특히 군당위원회책임일군들이 부림소관리공들과 공동으로 보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애로되는 점을 알아보고 그리고서 풀이준것은 그들로 하여금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분발하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이 부림소관리공들과의 사업을 마을과의 사업으로 심화시켜나간 생활한 이야기이다.

두해전 어느날 학원협동농장 제9작업반에 나갔던 군당책임일군은 부림소관리공 김명남동무를 알게 되었다. 해마다 부림소를 여러마리 관리하는 속에서도 한해에 송아지생산을 3마리씩이나 하고있는 그를 잘 도와주고 부림소관리공의 진흥으로 내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한 군당책임일군은 그와의 사업을 감행된 사업으로 심화시켜나갔다.

가정에 들려 생활상에도 알아보고 풀어준 사실, 부림소관리도구들을 혁신하고 사업에

## 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군종합속보판에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부림소관리공회의가 진행될 때면 주적단과 없었고 경성신문도 하계 한 사실...

이 나날에 그는 조선로동당원이 되었다.

혹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누가 보진않고, 알아주진않고 목욕히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어가고있는 애국농민을 한사람 한사람 찾아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원칙적인 사업태도는 부림소관리공들을 분발시켰다.

초정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협동농장의 부림소관리공들이 겨울철사양관리에 필요한 수십점의 관리도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놓는 등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헌신의 맘을 뿌려갔다.

군당위원회는 부림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해마다 분원과 가을이면 소품평회를 조직하고 모범적인 부림소관리공들과 송아지생산자들에게 시상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이것은 온 군에 더 많은 송아지를 생산하고 후보소들을 부림소로 키우기 위한 된 바람을 일구어주었다.

지난해 군에서는 송아지생산 계획을 1 8 2로 넘쳐 수행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 도적으로 진행된 송아지생산총화에서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결과 부림소를 리용하여 영농작업을 보다 적극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여놓았다.

당의 농업정책을 자기 힘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립장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옴은 방법론을 세워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은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혁신적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 생산돌격전의 기수가 되여

### 원산지 3대혁명별은

원산지 3대혁명별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선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하고있다.

당세포의 당원들은 직장의 크고작은 기계설비들의 만가공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위하여 쏟아 붓고있다.

린광명, 정명동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구두생산을 위한 주요공정들을 맡아 매일 두류, 세류의 해체하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제끼고있다.

뿐만아니라 당세포의 당원들은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생산된 제품을 보라고 마음속으로 웨치며 스스로 제품정사원이 되

### 원산지 3대혁명별은

원산지 3대혁명별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선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하고있다.

당세포의 당원들은 직장의 크고작은 기계설비들의 만가공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위하여 쏟아 붓고있다.

린광명, 정명동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구두생산을 위한 주요공정들을 맡아 매일 두류, 세류의 해체하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제끼고있다.

뿐만아니라 당세포의 당원들은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생산된 제품을 보라고 마음속으로 웨치며 스스로 제품정사원이 되

### 원산지 3대혁명별은

원산지 3대혁명별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선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하고있다.

당세포의 당원들은 직장의 크고작은 기계설비들의 만가공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위하여 쏟아 붓고있다.

린광명, 정명동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구두생산을 위한 주요공정들을 맡아 매일 두류, 세류의 해체하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제끼고있다.

뿐만아니라 당세포의 당원들은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생산된 제품을 보라고 마음속으로 웨치며 스스로 제품정사원이 되

# 주체철의 붉은 노을 강성대국의 아침을 부른다

## 예술 영화 《성강의 파도》(제 1, 2부)에 대하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것을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 반드시 해내야 할 역사적업으로 내세우고 그 승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켜주신 강선의 봉화따라 건강, 전국, 전민이 영웅적투쟁을 벌려온 대고조적전의 지난 80여일기간에 조국땅에서는 종전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은 크나큰 환희와 기쁨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한 대경사였다.

주체철탄생의 고심삼담한 력사는 그 자체가 야금계를 더리속에 하는 과학문이며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의 소재이다.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야 할 력사적사건의 의의를 심장으로 절감한 조선 예술영화화업소의 창작자, 예술인들은 대고조시대의 전투적인 창조활동으로 주체철탄생에 깃든 사연을 형상한 예술영화 《성강의 파도》(제 1, 2부)를 만들어내 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결정지시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돌기는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개와 끈기를 남김없이 과시하고 조국의 강성변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기둥을 세운 성강로동계급의 공적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예술영화 《성강의 파도》(영화문학 김일성생애관인 위용용, 송재환, 연출 공훈예술가 리관남, 박주국)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7(1998)년 3월 기업소를 찾아오시어 주체철탄생의 새로운 봉화를 지켜주시고 그날부터 1년 2월까지 백철불굴의 영웅적투쟁을 벌려 끝끝내 우리 식 체철제강법의 대성공을 이룩한 력사적사건을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 있다. 실제한 사실과 인물들에 기초하여 창작된 이 영화를 보면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할때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이 얼마나 절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주체철탄생이 가지는 력사적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절감하게 된다.

영화의 이야기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정책으로 하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그날에 우리가 우리 나라의 중요국철생산기지의 하나인 성진제강련합기업소가 처했던 엄혹한 현실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성강의 운명을 생사기지로 몰려왔던 가장 심각한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영화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인공들인 신철광과 전영훈의 이야기 그 애담을 주고있다.

신철광은 성강에서 나서자라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을 떼고 대학을 졸업한 기사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새 세대 기술자였다. 기업소의 이전 지배인이었던 전영훈은 한성을 강철생산에 바친 성강의 로세대였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이전 지배인에게 신철광이 충신의 한성에도 회개가 있는가고 묻자 전영훈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주체철을 해야 한다고 자신이 어버이수령님의 천리혜안의 가르치심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다음대에 넘기게 한 자기같은 사람을 어떻게 충신이라고 부를수 있겠는가 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책한다.

모든것이 보장되던 풍족한 시기에는 것처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주체철과 파수와의 대결이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는 자주적인민이 되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황폐한 운명문제로 나뉘었다. 그 심각성을 시사각각 느끼면서도 로세대인 전영훈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자신의

생이 이미 기울어졌다고 결론짓는것이고 새 세대인 철광은 자기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성강의 세대가 교체되는 력사적시점에서 두사람이 겪는 고통과 모순은 그대로 주체철연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의 성강의 실태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천리 강계의 눈보라길을 헤치신 걸음으로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오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숙측은 회견로를 보여드리는 죄책감으로 물물비를 몰라하는 일군들에게 성강로동계급이 조국수호와 봉화, 주체철봉화를 지켜올려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과 영예로운 과업을 안겨 주신다.

성강사람들조차 앞이 막막해보이던 시련의 눈보라속에서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과연 무엇을 굳게 믿고서 주체철탄생의 새로운 불씨를 안고 오시셨던가.

미래는 눈으로가 아니라 신념으로 보며 신념의 기둥은 위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인간의 힘에 대한 절대불변의 믿음이다. 아직은 작은 일세를 펼칠때 불과한 주체철이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산인인 주체철을 반드시 어버이수령님께서 키워주시고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뽐게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펼치는 기둥이 되리라는것을 준엄한 그날에 벌써 내다보신것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있어서 주체철의 성공은 새로운 체철제강법이 태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경제실무적문제이기 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시고 우리의 사상과 예의를 수호하고 민족적자존심과 조선로동계급의 존엄을 지키는 중대한 사상문제, 인간문제였다.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과학적담보와 기술적탄산에 앞서 언제나 당과 수령께 충직해온 성강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중시하고 가장 행복한 인간들로 시대의 절정에 올려놓으셨다.

어버이수령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성강이 시대의 봉화를 들고 수령님의 유혼관철을 위한 결사의 투쟁의 앞장서고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기업소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수령님의 성강, 선군조선의 성강이 무엇이 해내야 할 력사적의무를 자각하게 하여주고 자신들에게 부족했던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통렬히 깨닫게 하여주었다.

성강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주체철봉화를 수령님께서 하라고 하신것이라면 무조건 해내야 하며 장군님께서 된다고 하신것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념과 의지의 봉화, 운명들의 공적정신의 불꽃이 밝아안는다. 여기서부터 영화의 극정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과 성강의 운명을 대한 중대한 시대적문제에 전환되며 자기의 목숨에 주체철을 놓은 성강사람들의 심각한 인간문제로 번져간다.

누구도 걸여보지 못한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과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시련과 난관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은 곧 성강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단 1%도 남에 대한 의존심이 없는 결연한 주체사상신봉자로, 수령님의 참다운 전사,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혁명화과정이기도 하였다. 열번백번 실패해도 천번만 번 뛰쳐일어나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성강사람들의 역적같은 과학적신념, 격랑같은 배짱뒤에는 언제나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 성강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의 사연들이 다름아닌 조선화 《성강의 파도》에 비껴있다.

쇠물빛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세찬 파도가 노도쳐오는 명화속에서 성강의 로동계급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새겼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성강에 보내주신 조신화 《성강의 파도》는 결코 한쪽의 그림이 아니었다.

파도소리는 비록 들리지 않아도 심장에 울리는 제왕의 메아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의 자세가 어떤것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는 장군님의 절절한 음성이였다. 어렵고 힘겨운 때마다 《성강의 파도》앞에 서곤 하는 성강사람들의 눈앞에는 수령님의 유혼을 이 땅에 거머쥔것을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불길처럼, 뿌리처럼 바쳐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안겨오곤 하였다.

《성강의 파도》는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일군들뿐아니라 평범한 가정부인들까지도 주체철탄생을 위한 투쟁의 불도가니속에 뛰어들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장의 박동소리와도 같은 그 거대한 격랑을 가슴에 안고 성강의 로동계급은 주체철 30%에서 60%으로, 다시 100%으로 비약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드디어 주체에 파가 나도록 내리쳐서도 깨지 못한 콧수를 주체철로 산산이 부서버리는 눈물 어린 기쁨과 성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것이다.

과학에는 엄연한 법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사상과 신념을 지니는가에 따라 그 법칙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한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인간은 과학의 어떤 법칙도 자기에게 복무하게 할수 있고 자기의 요구대로 창조한다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과학과 인간에 관한 주체적법칙이며 선군조선의 위대한 사변들이 심층한 진리이다.

복잡한 과학적근본과 심각한 사고심의 로 연구사업이 시련을 겪을 때 주체철 100%을 목표로 내세운 성강의 대담성은 한손이 아니라 두손을 들어 적극 지지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성강사람들이 과학이 그어놓은 한계점을 용감무쌍히 돌파해 한 기적의 힘이 되었다. 성강의 정신력은 평범한 사람들을 과학의 승려자, 기적의 창조자,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들로 시대의 절정에 올려놓아주었다.

영화가 예술적으로 룬중해준바와 같이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을 대승리야말로 위대한 사상의 승려, 위대한 인간의 승려였다. 그것은 성강의 자식이 요구되고 시어 김일성조선의 대지위에 피워올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정정의 열매였다. 바로 그래서 우리 인민은 성강의 주체철을 그 어떤 제부에 비할수없이 귀중하고 값비싼 조선의 강철, 선군의 보물로 무겁게 받아안은것이다.

승리의 보고를 안고 금수산기념궁전에 달려온 영화의 주인공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이렇게 목메어 외쳤다. **어버이수령님, 원철로복귀하십시오. 주체철탄생에 이르기까지 6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아니셨다면 오늘도 수령님앞에 나서지 못했을 저희들입니다! 영화에서 울려나오는 이 절절한 웨침은 성강의 로동계급의 목소리만으로 들을수

없다. 대고조시대의 영웅들로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올라간 CNC의 선구자들, 2.8비탈론현탁기업소와 남흥의 로동계급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이런 심장의 고백을 던지었다.

창모로 맞은것을 생각하게 하여주는 영화의 이 절절장면은 충격적인 여론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오래오래 파고든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선 자리에 자신을 세워본 사람은 누구나 이런 절절한 향심의 물음을 듣게 된다.

성강의 로동계급처럼 수령님의 유혼관철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정의 자욱자욱에 인생의 발걸음을 맞추며 살고있는가? 강성대국선대전의 참전자들인 우리모두에게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몫이 있다.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서 조국앞에, 력사앞에 지닌 의무가 있다. 이 성스러운 의무를 시대의 전행인 성강로동계급의 모습을 통하여 새겨주는 데 영화의 특출한 인식교양적의의, 사상정서적강화력이 있다.

영화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로 대고조투쟁에서 우리 당이 창조되고 내세우고있는 성강의 투쟁정신, 창조기풍의 전형적형상들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주고있다.

영화가 보여준바와 같이 성강의 본래는 단 1%라도 남의것에 대한 의존을 허용하지 않는 확고한 주체적립장, 백번 실패하면 천번 다시 일어나 기어오르는 우리 당의 백철불굴의 공격정신이 메주먹으로 가 아니라 최첨단과학기술의 힘으로 단번에 비약하는 혁신적인 창조기풍이다. 영화는 나이도 적지않고 성격도 서로 다르지만 주체철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놓고 운명을 같이해온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속에 기업소 고문지배인이 되며 주체철을 위해 생명을 다수슴이 되지는 전영훈과 당책임이사 주용국의 형상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누구보다도 무거운 임무를 맡고있는 일군들에게 훌륭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특히 주체철생산체계를 위한 투쟁에서 당책임이사 주용국의 역할은 우리 일군들에게 오늘날 시대가 요구되고 군중이 바라는 대고조지휘관은 어떤 사람인가를 산모습으로 보여주고있다.

주용국은 주체철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제일이 알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남보다 더 고집하고 자신을 바치는 당일군이다. 그에게 있어서 주체철에 대한 성강사람들의 태도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문제였다.

하기에 그는 성강의 모든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주체철연구사업의 승려자만이 아니라 사랑과 신념의 강자, 당과 수령께 충직한 사제형의 혁명가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것이 새로운 체철제강법을 위한 투쟁에서의 자기 몫이라고 생각한다.

만사가 잘될 때에는 눈에 띄우지 않아도 힘겹고 시련을 겪을 때에는 대중의 맨 앞장에 제일 큰 부담을 지고 나타나는것이 바로 참된 당일군의 모습이다. 목소리는 높지 않고 늘 작업복을 입고 다니지만 주용국의 모습은 언제나 주체철연구집단의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위험한 장소에 제일 먼저 모습을 두드러지곤 하였다. 지식이 모자란데 착상을 보태주고 힘겨워 맥을 놓으면 아픈 매도 들고 실패의 책임을 주지 않았다 걸머지는 이런 당일군이 있었기에 성강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용의와 주저를 모르고 주체철 100%의 끝바른 한 걸음 줄달음쳐출수 있을것이다.

영화의 주인공 신철광은 오늘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기술전에서 주력을 이루고있는 새 세대 지식인의 본보기적형상이다.

그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허리를 졸라매며 대학생들을 키워준 나라의 고마움을 언제나 잊지 않고 야금계를 던지고 올라갈수 있는 높은 실력을 갖춘 청년인재이다. 뛰어난 실력과 지칠줄 모르는 정열은 그로 하여금 지난 시기의 주체철생산공정에서의 치명적인 불합리성을 밝혀내고 성공의 새로운 지름길을 찾아낼수 있게 하였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라와 기업소가 겪는 엄혹한 시련에 부닥친 젊은 그에게는 낙담하지고 용의하게 되는 순간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당책임이사 주용국이 나 절영훈고문지배인, 담임선생이었던 차혜선장관화에서 선군시대 새 세대 지식인이 간직해야 할 정신과 신념을 배우며 끝끝내 야금계를 뽐내던 세계적발명의 주체철생산공정에서의 치명적인 불합리성을 밝혀내고 성공의 새로운 지름길을 찾아낼수 있게 하였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라와 기업소가 겪는 엄혹한 시련에 부닥친 젊은 그에게는 낙담하지고 용의하게 되는 순간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당책임이사 주용국이 나 절영훈고문지배인, 담임선생이었던 차혜선장관화에서 선군시대 새 세대 지식인이 간직해야 할 정신과 신념을 배우며 끝끝내 야금계를 뽐내던 세계적발명의 주체철생산공정에서의 치명적인 불합리성을 밝혀내고 성공의 새로운 지름길을 찾아낼수 있게 하였다.

영화는 최첨단들과전으로 들끓는 오늘날 당과 인민이 제일 크게 믿고있는 우리 지식인들에게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현실속에서만 체험할수 있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고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식은 결코

학력이나 학위학직증서로 표현되는 그런 지식이나 학위, 영화에서는 영웅너성관리위원장 주체철 60%를 완성하여 박사가 된 신철광에게 묻는 대사가 관중의 심금을 두드러준다.

《선생은 우리 장군님의 심려중에 무엇을 풀어드리려 박사나 됐소?》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할 사람은 신철광만이 아니다. 당의 품속에서 배우며 자란 과학자, 기술자라면 누구든지 이 물음에 몇몇이 대답할수 있어야 한다. 영화에서 펼쳐지는 한 과학자부부의 형상은 이 물음에 대한 생활적인 대답으로 된다.

신철광의 담임교원이었던 차혜선장관은 성강사람은 아니었지만 주체철연구에 자신을 바치는것이 야금기술을 전공한 선군조선의 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성공에 더담뽀를 더여준다.

그러나 그의 남편 리의수박사는 학계의 공인된 지위에 만족하여 원서들이 가득찬 연구실에서 설계해낸 자신의 청사진을 두고 과학기술의 뜰대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철 100%에 의한 강철생산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짐이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두 지식인이 주체철에 대한 열정을 견결해 가지게 되는 영화의 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철 100%에 의한 강철생산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짐이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두 지식인이 주체철에 대한 열정을 견결해 가지게 되는 영화의 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철 100%에 의한 강철생산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12년이 눈앞에 막두른 오늘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앞에 우리의 충정과 향심을 세우려고 수령님의 유혼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본보기적형상을 마련해준것으로 하여 예술영화 《성강의 파도》는 새 세대 대고조적사에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화를 보면서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을 대승리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관철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커다란 기쁨을 드린 성강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으며 그들처럼 살며 투쟁할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성강의 파도는 오늘도 잠들지 않고있다. 주체철생산체계의 CNC화를 비롯한 새로운 최첨단들과의 높은 투쟁목표를 내걸고 비상한 창조력과 담대한 배짱으로 주체철이, 멈춤없이 비약의 폭풍시대를 앞장서서 개척해나가고있는 성강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는 어제보다 더 거세차고 더 뜨거운 격랑이 파도치고있다. 성강의 붉은 파도는 천만군민에게 이렇게 열렬히 웨치고있다.

우리로두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대고조적사에 몇몇한 삶의 자욱을 새기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정신의 발걸음을 따라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차 수



##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참관

【평양 3월 17일 조선중앙통신】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17일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연구소종업원들이 여러가지 남새품종들과 화초종자, 생선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수경온실과 태양열박막온실, 생물공학연구실 등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그들은 감상

록에 감을 남기었다.

썩은 원터라씩 라오스인 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대가는 판공속에 평양남새과학연구소가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과학연구기지로 꾸려졌다고 했다.

팔레트 쿠니신 로씨야방랑 특명전권대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고 전체 종업원들이 존경하는

어제 당보 1면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해군부대관한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어 소개하셨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와 함께 실린 단 한장의 사진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 사진은 뚝방에도 이쁜 우리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공장의 연혁소개실에 모셔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었다.

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제 50(1961)년 10월 3일이 공장을 찾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군인들에게 따뜻한 담배를 보내시며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었다. 이 사진은 수령님과 인민들의 가슴을 이룰수 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흔들여주었다.

이것이 전해지는 소식은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보도이건만 빚게 되는 모습은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이 있는 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며 대의 뒤에 더욱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기까지 모시고

메아리가 있다.

수령님께서 보시었다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소!

어서빨리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수령님께로 갑시다. 수령님께 이 기쁜 소식을 보고드릴시다!...

은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비날론북도앞에서도 어버이수령님 생각으로 격정을 금치 못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은 한상의 사진을 우러러며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비추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전사가 되시어 수령님의 영생의 보이지 않는 뿌리로 한성을 비추어가고있는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모습이 흘러가는 영화의

에게로. 인민들에게로 더 가까이 오시며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 이 열정을 다 쏟아부어 주었다. 4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이 뜻깊은 봄날에 온 나라 병사들과 인민들은 50년 전이나 50년후에나 변함없이 현지지도길을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영상 사진을 우러러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 3월 하순까지 주요남새작물비배관리대책

남새농사에서는 북부지대에서 씨뿌리기를 적기에 진행하고 서안평지대에서는 봄남새작물들의 모판관리와 겨울나인 작물들의 비배관리를 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평양지방에서 2월 상순에 씨를 뿌린 가두배추모판의 온도를 22~25°C의 범위 보장하면서 1월 하순에 씨뿌리기한 고추, 도마도비배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마늘, 시금치, 양파와 같은 겨울나인 남새는 봄에 재배로 되살이나 높은 수출을 낼수 있도록 겨울기간 덮여주어야 한다. 덮이기가 강냉이를 재배해 벗겨주고 흙을 끌어주는것과

함께 토양습도를 75%정도 보장하면서 류안비료를 물에 조금 풀어 덧비료로 주는것이 좋다.

봄배추재배에서는 박막합의 온도를 잘 보장하는것과 함께 덧비료주기와 물주기를 제때에 하여 배추가 충실히 자라도록 하여야 한다.

4월에 수확한 봄배추, 부부, 옥수수 등에 대한 온도관리와 덧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밤온도가 봄배추, 부부, 옥수수에서 3°C, 도마도에서 5°C, 오이, 호박에서 8°C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밤에 박막을 씌워주어야 한다. 낮기온이 높아지면 박막굴의 온도가 높아져 잎이

데거나 심한 경우에는 잎들이 전부 시들어 죽을수 있으므로 온도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4월 중순에 수확하는 배추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예컨대는 기상조건에 맞게 박막온실에서는 밤에 박막을 씌우며 낮에는 벗겨 적당한 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야 한다. 찬바람이 직접 들어가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덧박막을 대어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온실안에 고랑을 만들어놓고 물을 그곳에 넣어 찬기운이 없어진 다음 오전시간에 물주기를 하여야 작물생육이 잘된다.

본사기자

## 한상의 뜻깊은 사진을 보며

절절한 목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아, 장군님! 저희들은 50년만에 또다시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뵈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수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였습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켜주시고 그날부터 우리 장군님께서 찾오셨던 공장, 기업소들은 그 열매였었다. 예 처가신 강행군에는 또 몇몇몇 영원이 꽃피고있으며 수령님의 영생의 력사는 오늘날도 이 땅에 변형없이 흘러가고있는것이다.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찾아오시어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로력혁신자들과 기념촬영까지 하시었다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러 보노라면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

회복처럼 안겨온다.

뜻깊은 사진화폭속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 무슨 말씀을 하고계시는것인가.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릴 2012년에 줄달음치는 우리 인민에게 무엇을 안겨주시는것이며 그이의 태양의 미소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어떤 투쟁의 열망을 안겨주는것인가.

우리의 귀전에 정정히 들려온다.

동무들은 일을 하나 하여도 김정일동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걸음을 걸어도 김정일동지가 가리키는 길로만 가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정령 수령님의 그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고 수령님께서 해빛같이 따사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병사들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떨치리라는 명귀의 구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실천이다.

2012년의 승리의 경축광장에서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기다리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으로 우리모두 어서빨리 달려가자. 수령님의 품으로 우리를 할당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천만군민이여, 우리 어서 가라. 위대한 장군님처럼 수령님의 유혼을 품어우는 길에서 우리모두 뿌리가 되자.

두고두고 잊을수 없는 뜻깊은 사진이다. 한 공정의 연혁소개실에 보관되어있는 사진은 대고조적사에 빛날 불멸의 기념비적 화폭으로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남아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리수정

# 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는 자애로운 사랑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통일전쟁과 강성대국의 찬란한 태양을 부르며 세상은 진아왔다. 내 조국의 기쁨진 진아, 사회주의행동법마다에 땅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계적평화를 풀어주시고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하여 주신 김제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도의 정이 차던 차고있다.

지금도 우리의 귀에는 난생 처음 부여받은 제 땅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말뚝을 박으며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목에 어러치던 이 나라 농민들의 만세의 환호성이 메아리쳐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은덕은 북반부인민들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 조선전쟁시기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김일성주석님의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시기 위해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지체없이 토지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여 주셨다. 그 크나큰 사랑에 남녘인민들은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했다.

남조선인민들은 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았으면 하던 소원을 현실로 꽃피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잊지 못해하며 수령님

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터치고있다.

땅이 없어 착취제도의 억압과 천대를 받으며 가난에 시달리던 농민들에게 참된 삶의 권리와 보람을 안겨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은 총칭남도 부여의 한 로인의 가슴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그는 《김일성주석님의 덕분에 이북농민들은 해방직후에 벌써 마음껏 농사를 짓고 잘살아보던 소원을 풀었다.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신 농민들의 세계적숙망을 깊이 헤아리시고 토지개혁법을 발표하시어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시었을뿐 아니라 농공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피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농사를 짓게 해주셨다. 평범한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느니만큼 위대하고 고결한 품도가 남녘인민들에게 안겨 주신 감동의 크기는 그 무엇으로써도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한없는 흠모의 마음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사랑의 한몸에 안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으로 끝없이 달리고있다.

남조선의 한 농업경제학자는 《농사를 친하지대본으로 여기

시고 농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이북은 이남농민들의 희망봉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빛내어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농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국가적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주셨고 계시니 어찌 이북농민들이 성수가 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쁨에 넘치지 않겠는가. 정령 김정일장군님은 농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시이다.》

이북바로알기회 회원 김진수는 천지개혁을 안아온 이북에서의 토지정리는 오직 위인의 애국신화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잃어버린 이 어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공적노에 수추신된 잠들었던 농토가 대규모규격속으로 개척되는 놀라움 전변이 일어났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늘 농사꾼을 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농사문제를 제일국가로 여기시고 진두에서 세심한 지도를 주신다고 한다. 그분의 위대한 평등도가 있었기에 한겨울에 얼어붙은 대지를 뒤엎어내고 전혀 새로운 모습을 가진 대규모포전들이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외래철학자들의 군애에 지참혀 머물때도 머뭇머뭇 그러만

고 따뜻한 봄빛이 흘러넘치는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는 남녘의 민심을 반영하여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한마디로 김정일장군님의 선공적평등도는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불멸의 힘의 원천이다. 이남에도 김정일장군님의 선공적평등도가 펼쳐져야 죽어가는 땅이 부활하고 오염된 환경도 개선되며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청신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라고 말하셨다.

전라남도에서 사는 한 농민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평등도에 군인이 힘을 합쳐 벌려나가는 북의 토지정리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터놓았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거창한 토지정리사업으로부터 구제적인 농사문제가 이르기까지 모든 농경에는 무한대의 민중사랑이 깃들여있다. 농민들이 정호양까지 보장받은 농사를 짓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이북에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야기하지 않으신다고 한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는 집체의 위인의 품속에서 사는 북의 농민들은 중풍으로 복받은 농민들이다. 우리도 장군님의 사랑의 정치를 받아보았으면 힘이 없겠다.》

광 주의 한 주민은 《김정일평등도자님께서 한 번 다녀가신 농가마을들에는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일떠서고 옛말에나 나오던 선경이 펼쳐진다. 세상에 나라마다 농민들이 있지만 공화국의 농민들처럼 평등도의 해배같은 사랑과 혜택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없다. 생각할수록 김정일평등도자님의 정치처에 천지개혁한 드넓은 벌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는 북의 농민들이 부럽기만 하다.》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남농민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남조선농민단체장들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이북의 농업정책은 가장 인민적인 정책이다. 앞으로 통일된 조국땅에 풍년과 수확을 쌓아 놓고 《김정일장군 만세!》를 소리높여 부를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굳세게 살아가겠다. 우리모두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안고 그분을 받들어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 파견히 떨쳐나서자.》

이것이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우리 공화국을 그리며 선군태양의 빛바람이 새아오는 통일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마중가는 남녘저레들의 굳센 신념과 의지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김현철

## 민족의 위대한 대양을 우리끼리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불분별의 로고를 바치고계시는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오로지 김일성주석님의 애민애국사상과 리념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민족우위론에 립각한 참다운 통일애국의 정치를 펴신다고 학자의 함성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마음은 민족의 진정한 령수이시고 민족단합의 구심점이다.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될지는 통일애국의 정치를 펴신다고 학자의 함성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마음은 민족의 진정한 령수이시고 민족단합의 구심점이다.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될지는 통일애국의 정치를 펴신다고 학자의 함성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마음은 민족의 진정한 령수이시고 민족단합의 구심점이다.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될지는 통일애국의 정치를 펴신다고 학자의 함성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셨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통일애국의 정치를 펴신다고 학자의 함성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마음은 민족의 진정한 령수이시고 민족단합의 구심점이다.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될지는 통일애국의 정치를 펴신다고 학자의 함성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셨다.

백두청년회 회장은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이북민중만이 아닌 전체 우리 민족의 평등도자이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자주적운영

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신 위대한 평등도자 이 세상에 없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제주도의 한 주민은 《우리는 김정일평등도자님만을 믿고있다. 그분만을 믿고 따라야 통일이 빨리 오고 통일이 빨리 오면 주인이 되어 잘사는 민주사회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남녘겨레들은 현실을 통해 경에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따르고 받아들여질 민족의 결속한 평등도자임을 확인하였다.

경기도의 한 재야인사는 《김정일평등도자님께서는 겨레에게 가장 정확한 통일방략을 안겨주시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끝까지 이끌고계시며 넓으신 도량과 사랑으로 거케모두를 통일애국의 광장에 세워주신다. 나는 김정일평등도자님의 위인적품모를 통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풀어주실것은 오직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았으면 하던 소원을 현실로 꽃피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잊지 못해하며 수령님

을 더 잘 모시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우리 민족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가리키신대로 오로동대안 지숙되어온 의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은 민족으로서의 영예를 세상에 떨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어느 한 정치평론가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심점으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영리히 믿고 따르려는 남녘인민을 담아 이렇게 토로하였다.

《태양을 떠나 세상만물의 생존을 생각할 수 없듯이 백두의 천출명왕 김정일장군님의 평등을 떠나 자주주권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이 그처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던 백두광명성은 오늘 선군의 태양으로 민족의 앞길을 밝히고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공적노가 있어 우리 민족은 통일위업을 성취하고 세계에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광신자들의 대결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 반미의 불길이며, 더욱 세차게 라번지라

지금으로부터 29년전 남조선의 분할에서 미국문화원이 세한 불길에 휩싸였다. 미국이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송미굴종의 식을 부식시키면서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책동을 강화하고있는데 격분한 애국적청년학생들이 부산미국문화원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부산미국문화원에 대한 방화는 일시적인 충동이냐 흥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조선에 타고있던 구형세력을 하면서 온갖 견장으로 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는 파멸적인 강점자,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약탈하게 방해하는 원흉을 대한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었다.

1980년 5월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강렬한 저항의 열망에 의해 파주인민봉기가 일어났다.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이 의로운 항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남

조선군사파괴도당을 배후에서 조종한것이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피바다에 잠긴 파주의 참상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이야말로 그 어떤 《은인》도 《원조자》도 아니며 오히려 가장 야수적인 침략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반미의 무풍지대로 불어오던 남조선이 반미의 열풍지대로 전환되게 되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군 나가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울려나오는 속에 1980년 12월 파주의 미국문화원터가 화염속에 휘말렸다. 미국의 식민주의배정책을 박차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1982년 3월 18일 부산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추조치는 원한과 분노를 담아 가증스러운 악의 소굴을 불태워버렸다. 《양기는 물러가라!》, 《미국의 식민주의를 규탄한다!》, 《반미 투쟁의 화불을 들

자》라는 내용의 반미비라들이 시내도처에 뿌려지는 속에 인민들의 뜨겁고 반미의 지의 시위마냥 불길은 무섭게 타래쳐 올랐다.

《우리가 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른것은 미국이 이 땅에서 벌인 피사적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부산미국문화원방화 투쟁참가자들이 법정에서 웅변한 말이다. 그들의 웅변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온갖 불행과 재난을 들뜨우는 미국의 범죄적정체를 꿰뚫어보면서 침략자들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표시해준 것이다.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참가자들의 웅변은 오늘날도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메아리가 되 울려져지고있다.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밀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천치보수분자들은 부추겨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힌 미국

은 그들을 내세워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남조선미국 《동맹》관계의 강화와 소고기시장 개방, 《전시각통제권전환》의 연기 등은 심화되는 남조선의 내미비호의 산물이다. 현실은 미국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과 생존권, 민족적리익은 유린당 살피고있다는 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더우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보여 지는바와 같이 미국이 남조선 호전적책동을 감행하고있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남조선은 60년이 넘도록 강점하고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생명책동을 약탈하게 가로막고있는 미국의 범죄적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보수세력의 미국반역행위를 용납한다면 남

조선인민들은 언제 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보수 《정권》의 출현조차 남조선각지에서 힘차게 벌어진 대중적인 초보시위투쟁과 지금 각계층 인민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격렬하게 벌리고 있는 반미반전투쟁은 미국의 전횡과 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그들의 결사의 의지에 대한 파시르 된다.

미국을 반대하며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줄 남조선인민들의 투지는 확고부동하다.

반미의 불길이며, 더욱 세차게 타번지라.

승리는 언제나 정의의 위해 싸우는 인민들의 편에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향 III

## 반역적 죄악, 민심의 반감

남조선에서 현 보수당국이 출현한지 3년이 된것을 계기로 《불통정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있다. 여기에는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마구 짓밟으며 오만한 독재정치를 일삼는 보수당국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울분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소통, 통합》이니, 《친서민정권》이니, 《살인정권》, 《오만방탕한 정권》, 《강부자정권》 등 현 남조선당국을 가리키는 이 내명사들은 집권후 오늘까지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민적악정만을 일삼아는 보

수세당의 죄행을 날같이 고발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외교는 고질, 경제는 불신, 남북관계는 망신의 《3선정권》, 《인사는 날치기, 경제는 망치기, 외교안보는 뒤보치기》의 《3치정권》, 《물먹치고 파멸치하며 후안무치한 《3치정권》 등 가장 수치스러운 오명을 다 뒤집어썼다.

이뿐이 아니다. 《쿠데타정권》이라는 오명에도 남조선통치배들의 죄악이 비껴갔다. 파쇼정권에 의한 《공안쿠데타》, 제법들만 위하고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경제쿠데타》, 진보인론에 자갈을 물리는 《인문쿠데타》, 교육분야를 실정경제의 희생물로 만드는 《교육쿠데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실업자로 만드는 《로동쿠데타》,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쿠데타》, 현실을 가리우고 명사를 외곡하는 《력사쿠데타》, 《국회》를 탄압관으로 만든 《의회쿠데

타》 등의 날말들이 나돌면서 인민들을 분노로 끓게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현 《정권》 하에서 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 땅은 사람은 물론 소나 돼지도 믿을 없는 세상이다.》라는 울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민주로동당과 진보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반역 《정권》의 집권 3년간죄악을 심판하는 집회를 열고 극악한 독재정권으로 평화를 가로막으며 인민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보수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민적, 반민족적죄행을 날같이 고발하면서 모든 진보세력이 결단하여 현 독재 《정권》을 끝장내고 새 세상을 세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인민을 등진 반역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나서고있는 남녘인민들의 투쟁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본사기자

## 후진국들에 대한 치수는 분노

남조선에서 북침을 가장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강렬한 항의의 구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우리 공화국을 거는 이번 전쟁연습소동의 침략적기조를 날같이 깨닫히면서 평화를 가로막고 민족의 머리우에 책친정의 참화를 들뜨우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을 준벌하되 단죄규탄하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던 지난 2월 28일 남조선각계에서는 북침전쟁발장난소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제히 전개되었다. 이날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분부는 피회해군작전사령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남대화분위기를 해치고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진보연대를 비롯한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의 지휘 통제소앞에서 공동집회를 가지고 동족대결정책을 일삼으며 의세와 야합하여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행위를 준벌하되 단죄규탄하였으며 인척과 대진, 파주에서도 각계층 단체들이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시위투쟁을 벌리었다.

같은 날 전라북도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가 이번 합동군사연

습에 대해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북침공격연습이라고 하면서 호전적세력이 기만행위를 그만두고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로동당은 논평을 발표하여 미국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는 보수당국의 흉악한 속사를 폭로하였다.

론평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본인 《작전계획 5029》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위협적인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현 《정권》이 정치적목적에 의해 뒷받추고있다고 까발렸다.

론평은 보수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의세와 야합으로 불타달리는 자들의 파멸을 부추해보려고 펴하고있지만 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권력유지를 위한 전쟁을 불리하던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대회 학생위원회는 3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기조를 까발리면서 호전세력이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민주진생평화통일추진연대도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각계각층이 단결하여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전쟁 《정권》을 심판할것을 주장하면서 전체 민중이 위협천만한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마천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명백히 북침을 노린 세계공격연습이라고 규탄하면서 더우기 군사연습개시후 국방부 장관이 군사분계선일대에 나타나 《선조지, 후복을》 명령을 내린것은 《북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음모》라고 까발히었다.

그들은 계속되는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민중이 폭탄을 이고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모든 진보세력이 힘을 합쳐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지고 호소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 세차게 벌여지고있는 북침전쟁연습반대투쟁은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결연한 의지의 힘있는 파시르 된다.

본사기자

## 강점군에 의해 당하는 불행과 재난

지난 2월 26일 남조선의 경기도의 한 병원이 두명의 환자가 실려왔다. 그들은 70대의 로인부부인데 미군범죄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날 아침 집터에 뛰어들어 온 부부들은 그들을 마구 폭행한 후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조선 각계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미군범죄자를 강력 처벌하고 불명횡한 남조선미국 《행정형》을 당장 철폐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한 야당은 논평을 발표하여 미군범죄자가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그리고 미군범죄자가 계속 일어나고있는것은 그것을 조장하는 남조선미국 《행정형》 때문이며 지난 2002년 애러린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인 미군범죄자들도 이 《행정형》으로 하여 무죄로 선고받았다고 폭로하였다.

미제침략군이 남녘은 남조선에서 이런 범죄행위를 이루도 흔한 일로 되고있다. 특히 현 남조선당국의 출현이후 미군범죄건수는 더욱 늘어나고있다. 나중에는 미군가족들까지도 범죄행위에 가담하고있는 편이다. 지난해 2월 12일 미군 2명 이 한 녀성을 성추행하다 못해 기고안장해서 술집에 드나들고 있는 편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친미시대행위는 력대 최악이다. 그들은 미국을 상권으로 삼기면서 그와의 《동맹》강화에 국성을 부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군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행정형》을 구실로 《공무

의 통일》이니 하는 말말들을 공표하여 늘어놓으면서 반공화국책제와 압력, 북침전쟁도발소동을 약탈하게 벌리었다. 이로 하여 북남사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는 최악에 이르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은 극도로 고조되였다.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은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은 이 겨레의 치수는 분노를 자아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실에서는 각계 진보세력들과 야당들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북정책》의 전향과 북남대화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지이 집권세력내부에서조차 당국자와 통일부의 반민족적책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의 적극적내 대화력과 그것을 지지하며 당국의 반통일책동에 항의해나서는 남

로 까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제침략군은 우리가 너희들의 《보호》 해주니 응당 우리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강점자의 파멸치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에 물젖어있고. 그뿐만아 미제침략군은 매일같이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폭행, 강간 등을 일삼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보수당국의 친미시대정책과 불명횡한 《행정형》의 보호없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기고안장해서 술집에 드나들고 있는 편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친미시대행위는 력대 최악이다. 그들은 미국을 상권으로 삼기면서 그와의 《동맹》강화에 국성을 부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군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행정형》을 구실로 《공무

## 미국산 무기 수입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4일 스위스에의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남조선과 북한의 미국산 무기수입량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피뢰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서 끌어들이는 비중은 71%에 달하고있다 한다.

## 대결정책 비난

남조선의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영진 의원은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은 원칙있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대외에 대한 언급하고 민중은 통일부가 있거나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대 당사자는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며 이영진도 조소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 결과 속이 다른 자들의 말잔

의 통일》이니 하는 말말들을 공표하여 늘어놓으면서 반공화국책제와 압력, 북침전쟁도발소동을 약탈하게 벌리었다. 이로 하여 북남사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는 최악에 이르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은 극도로 고조되였다.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은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은 이 겨레의 치수는 분노를 자아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실에서는 각계 진보세력들과 야당들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북정책》의 전향과 북남대화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지이 집권세력내부에서조차 당국자와 통일부의 반민족적책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의 적극적내 대화력과 그것을 지지하며 당국의 반통일책동에 항의해나서는 남

본으로가 아니라 연설문을 제우는 수사학으로 끝낼수리 없다.》

남조선당국에 북남대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있었다면 북남관계는 이미 회복되었을것이며 조선반도정세가 오늘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것이다.

북남관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 유일한 출로는 대화와 협상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그토록 진지하고 성의있는 대화체제를 남조선당국에 한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세력은 그 무슨 《책임있는 조치》니 뭐니 하는 부당한 조건부들을 내세우고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서슴없이 차버렸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의 평화적인 해결동을 집요하게 걸고드는 한편 모략

본사기자 북은 희

#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백승떨치는 사회주의조선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도미니카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에 대한 연구 토론회가, 로씨야에서는 연회와 영화감상회가, 네델란드에서는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도미니카혁명적대안당, 로씨야 연대혁명당, 종합체제연구소, 철학협회, 인민민주주의사상연구소, 인메르브루메호브스마르브카유한주식회사, 메호비 슈투츠키회사, 네델란드선군조선-주체철학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모리》, 《도라지꽃》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도미니카혁명적대안당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회자들은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도발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철벽의 요새로 다져진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도 당내에 쳐부시고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하였다.

로씨야철학협회 편다지부 주체사상연구소 책임자는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집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공부화시키고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인민을 강성대국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세계적 판도에서 광범히 보급되고있는 주체사상은 인류가 따라배워야 할 혁명철학이다.

로씨야 인메르브루메호브스마르브카유한주식회사 총사장과 메호비 슈투츠키회사 사장은 영화를 보고 조선의 축복야회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걸작이다. 여기에는 김정일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여 나가시려는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의지와 그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격찬하였다.

《김정일, 인민이 흠모하는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자주강국에서 존엄있게 살아가려는 조선인민의 세계적수명을 실현시켜 주는분이다.

그이께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심으로써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김정일령도자는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가장 훌륭히 실현시켜주시는분이다.

그이의 인격적품성, 조선의 지자자원》 등 제목의 글들을 옹근 찬탄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의 리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정일종합대학에 입학하시면서 읊으신 시에서 볼수 있듯이 조선을 세계만방에 빛내이는것이 그의 리상이다.

그이께서는 반세기여 걸치는 선군령도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것이 김정일령도자의 의지이다.

그이의 령도로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새로운 강철생산체계가 확립되고 마그네슘광공업의 주체화와 수요공장, 기업소들의 CNC화가 실현되었으며 주체비날론복포가 쏟아지고 있다.

군계사회는 김정일주석의 소년이며 김정일령도자의 리상인 강성대국건설이 조선에서 현실화되고있음을 목격하고있다.

나미비아신문 《뉴이더》는 《하나의 구호를 통해 본 조선의 강성대국건설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

을 실었다.

세계에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천연자원의 혜택을 특별히 많이 받는 민족도 있고 다른 나라의 원조나 협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동방일각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는것은 다른 나라의 원조나 협조에 의지하지 않는 나라의 의지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통성변명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목표달성의 근본열쇠를 틀어쥔 조선인민이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영웅사건을 보고있다.

메히코신문 《우니다드 나세오날》,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말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후추의 용모도 없이 승리를 위한 열광에 넘쳐 충공룡전을 벌여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는 글들을 실었다.

찬 일터에서 일하고있는 모습과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편집하였다.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사진과 최첨단조선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주체사상과 조선의 경제발전》, 《세계적판성, 조선의 지자자원》 등 제목의 글들을 옹근 찬탄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의 리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정일종합대학에 입학하시면서 읊으신 시에서 볼수 있듯이 조선을 세계만방에 빛내이는것이 그의 리상이다.

그이께서는 반세기여 걸치는 선군령도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것이 김정일령도자의 의지이다.

그이의 령도로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새로운 강철생산체계가 확립되고 마그네슘광공업의 주체화와 수요공장, 기업소들의 CNC화가 실현되었으며 주체비날론복포가 쏟아지고 있다.

군계사회는 김정일주석의 소년이며 김정일령도자의 리상인 강성대국건설이 조선에서 현실화되고있음을 목격하고있다.

나미비아신문 《뉴이더》는 《하나의 구호를 통해 본 조선의 강성대국건설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

##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

로씨야 신문 《파트리오트》 제 9 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 상 사 진 을 모시고 《특출한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 회 의 강성대국 건설 대 전 을 진 두 지 휘 하시 면 서 이 룩 하 신 빛 나 는 업 적 을 칭찬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먼저 2월 16일은 김정일 동지의 탄 생 일 이 라고 하면서 이날은 전세계 진보적 인 민 대 대 계 미 령 도 대 한 희망 을 안겨 주는 뜻 깊은 날이라고 지적하고 다음

로씨야 신문 《파트리오트》 제 9 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 상 사 진 을 모시고 《특출한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 회 의 강성대국 건설 대 전 을 진 두 지 휘 하시 면 서 이 룩 하 신 빛 나 는 업 적 을 칭찬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먼저 2월 16일은 김정일 동지의 탄 생 일 이 라고 하면서 이날은 전세계 진보적 인 민 대 대 계 미 령 도 대 한 희망 을 안겨 주는 뜻 깊은 날이라고 지적하고 다음

서 주체철학을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데 기초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다.

신문은 계속하여 김정일동지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은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 국내의 원료와 연료, 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일떠세우는것이며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이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신데 대해서와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영화를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세계적 판도에서 광범히 보급되고있는 주체사상은 인류가 따라배워야 할 혁명철학이다.

로씨야 인메르브루메호브스마르브카유한주식회사 총사장과 메호비 슈투츠키회사 사장은 영화를 보고 조선의 축복야회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걸작이다. 여기에는 김정일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여 나가시려는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의지와 그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격찬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TV방송이 기념 보도를 하고 우리 나라 영화를 방영하였다.

로씨야신문 《헤레판》 제 7 호는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인민의 사랑을 받으시는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숭배하고 존대하신다. 하기에 그이께서 실시하시는 정치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정치로 되고있으며 조선에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펼쳐졌다고 지적하였다.

에정지신문 《알 마씨야》

이런대목에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12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정의의 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반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영화를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세계적 판도에서 광범히 보급되고있는 주체사상은 인류가 따라배워야 할 혁명철학이다.

로씨야 인메르브루메호브스마르브카유한주식회사 총사장과 메호비 슈투츠키회사 사장은 영화를 보고 조선의 축복야회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걸작이다. 여기에는 김정일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여 나가시려는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의지와 그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격찬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TV방송이 기념 보도를 하고 우리 나라 영화를 방영하였다.

로씨야신문 《헤레판》 제 7 호는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인민의 사랑을 받으시는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숭배하고 존대하신다. 하기에 그이께서 실시하시는 정치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정치로 되고있으며 조선에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펼쳐졌다고 지적하였다.

에정지신문 《알 마씨야》

이런대목에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12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정의의 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반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지역기구인터베트 소개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영국 단체들의 영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지지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촉박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불법무력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목적으로부

이런대목에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12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정의의 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반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자비 세력들을 비난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여러 나라들 협조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촉박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불법무력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목적으로부

이런대목에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12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정의의 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반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항의 집회와 시위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나무심기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촉박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불법무력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목적으로부

이런대목에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12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정의의 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반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국방력 강화 노력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국부신문 미국의 사이버전쟁책동 규탄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촉박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불법무력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목적으로부

이런대목에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12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정의의 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반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국부신문 미국의 사이버전쟁책동 규탄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촉박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불법무력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목적으로부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일본에서 원자로연속폭발로 대규모방사능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촉박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불법무력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목적으로부

이런대목에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12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정의의 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반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일본에서 원자로연속폭발로 대규모방사능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촉박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불법무력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목적으로부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기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운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국의 불꽃을 지펴 주시였으며 김집체철원합기업소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일본에서 원자로연속폭발로 대규모방사능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촉박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불법무력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목적으로부

이런대목에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12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정의의 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반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과 나바르스 쌍무협조편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 하기로 하였다.

## 일본에서 원자로연속폭발로 대규모방사능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촉박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일단의 진상공개장(2)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불법무력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목적으로부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통성과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동맹과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굳애와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8년 12월 천리마강철합기업소를 찾으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